



‘척추 영상의 최신 경향’ 특별호 발간에 부쳐

성미숙 (근골격계 특별호 초청 편집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천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어느덧 대한영상의학회지의 근골격계 분야 특별호가 세 번째 맞이하였다. 첫 번째 특별호(2020년 81권 1호)는 근골격 자기공명영상의 최신 경향으로 근골격 해부학의 자기공명영상, 근골격계 최적화된 자기공명영상의 프로토콜과 금속 인공물 감소방법, 척추의 확산강조영상, 자기공명영상 림프관조영술과 신경조영술에 대해 다루었다. 두 번째 특별호(2021년 86권 6호)는 자주 마주치며 흔하지만 진단적 딜레마를 유발하는 질환에 초점을 맞춰 선정된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 부분 파열,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 후 영상, 만성 외측 발목 불안정과 인대 손상, 감염성 척추염과 유사한 감별 질환에 대해 심층 리뷰하였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퇴행성 척추 질환이 증가하고 더불어 영상 검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영상 판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비수술적 치료인 통증 인터벤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세 번째 특집호는 척추 관련 다섯 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분리 추간판탈출증(sequestered disc), 자발두개내압저하(spontaneous intracranial hypotension)의 척추 자기공명영상 소견, 척추 수술 후 영상 평가, 요추 후관절(facet joint) 주사, 고령에서 단일 병소의 골전이를 다루었다.

분리 추간판탈출증에서 분리된 추간판이 주변 구조물과 신경 경로를 압박하여 다양한 임상 증상을 유발한다. 그 임상 소견이 특징적이지 않고 다른 척추 질환과 영상 소견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며 발병률이 낮은 비특이적인 위치에 발생한 경우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오진할 수 있다(1). 따라서 영상의학과 의사는 분리 추간판의 발병 위치와 다양한 영상 소견을 숙지하여 종양을 포함한 다른 척추 질환과 감별해야 한다. 자발두개내압저하는 이전에는 특징적인 뇌 자기공명영상 소견들이 알려져 왔으나 병명과 달리 척추에서 뇌척수액 누출이 원인으로 알려져 척추 자기공명영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2). 자발두개내압저하의 진단, 척추 자기공명영상 소견, 뇌척수액 누출 여부와 정확한 누출 부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최신 영상검사법들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척추 질환의 증가와 더불어 척추 수술에 사용되는 기술과 장비의 발전으로 척추 수술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수술 후 정상 상태와 합병증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시간에 따른 다양한 합병증을 이해하고 영상의학 소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요추 후관절에서 기인하는 요통은 만성 요통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여겨지며 유병률은 15%에서 45%, 최대 82%까지 다양하다. 요추의 후관절 병증은 그 증상이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추간판탈출증이나 신경근 압박에 의한 통증과 감별이 어렵다. 아직까지 후관절 주사의 임상적인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후관절 주사로 치료하고 있다(3). 후관절 내 주사의 임상적 유용성과 시술 관련 안정성에 대해 이 종설 저자들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 주제는 골전

이로서 척추는 골전이와 흔히 발생하는 부위이다. 다발성 병변으로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골전이를 먼저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고령의 환자에서 병적 압박골절을 동반하지 않고 척추체에 단일 병소로 나타나면 골전이 외에도 다른 병변과 감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진단적 딜레마를 유발할 수 있다. 골전이와 감별이 필요한 여러 감별 질환을 알고 특징적인 영상 소견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특별호가 영상의학회원 여러분의 진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별호를 소개한다.

REFERENCES

1. Montalvo Afonso A, Mateo Sierra O, Gil de Sagredo Del Corral OL, Vargas López AJ, González-Quarante LH, Sola Vendrell E, et al. Misdiagnosis of posterior sequestered lumbar disc herniation: report of three cases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Spinal Cord Ser Cases* 2018;4:61
2. Dobrocky T, Nicholson P, Häni L, Mordasini P, Krings T, Brinjikji W, et al. Spontaneous intracranial hypotension: searching for the CSF leak. *Lancet Neurol* 2022;21:369-380
3. Kim BR, Lee JW, Lee E, Kang Y, Ahn JM, Kang HS. Intra-articular facet joint steroid injection-related adverse events encountered during 11,980 procedures. *Eur Radiol* 2020;30:1507-1516